

정부혁신 장·차관 워크숍 모두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정례 워크숍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장·차관, 그리고 청장들이 모여서 혁신 토론 또는 학습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제를 금년도 업무평가와 내년도 새해 업무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하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왜 학습이냐.’ 혁신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것입니다. ‘혁신, 혁신 하는데, 왜 혁신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혁신에 대한 이유를 많은 얘기로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질문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최고인가, 일류인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서 과연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쉽게 기업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의 일하는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설사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계속, 계속 노력해야 하는데, 만일에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각 부처,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장·차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최고라는 표현이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경쟁제일주의, 승자독식주의 관점에서의 최고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를 최고로 안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적어도 장·차관, 공직사회 간부 여러분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최고로 하고 대우는 2급 정도로 받으면 아마 그게 봉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모두들 좀 당황해 하는데,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면 연구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과정이 대체로 모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적 활동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모방하고 실천하고, 아울러서 부단히 연구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 연구 과정 중의 하나가 학습과 토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토론을 오늘 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혁신에 우수한 사람인가, 어떤 부처가 가장 우수한가.’ 적어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수준이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하지.’ 이것이 고민인 부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마음이 급하고 여러 가지 일들

이 많아야 합니다.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자리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고 해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뭘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감을 확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먼저 할까, 어떻게 일을 나누어서 할까?' 그것이 고민이 될 만한 수준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히려 좀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목표설정을 제대로 안 해 놓아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할지가 조금 난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우리가 세운 목표와는 좀 관계없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목표를 얼마 만큼 성취했는가, 얼마 만큼 성실히 수행했는가?' 라는 데 대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제대로 좀 세우고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초의 보고시점부터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결과가 뭔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평가만 하고 끝나 버리면,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크게 평가의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평가의 결과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환류시키는 것까지, 내년에 그것까지 완결된 상태로 한 번 만들어 가 보자, 그런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년도의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도 있고, 여러분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기해 주신 많은 의견들

은 이제 다듬어서 목표, 목표 관리, 성과 관리, 또 평가, 이 방법에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